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6월 임원회의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시므온, 나오미 선교회 주관예배입니다.

오늘 오후집회 후에 세미나실에서 수양회 준비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집회는 7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10일(화) 오전 10시 남산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시원한 예배 - 절전을 위해 다소 간편한 복장으로 교회에 오십시오.

**2012 청파전교인여름수양회**

일시 : 8월 2일(목) - 4일(토)

장소 : 흥천 팔렬 중고등학교

식 당 봉 사 : 김금순 박영신 이은정 서수진 박숙영 박영희 김종락  
 7/8 식 당 봉 사 : 이형숙 광혜자 권미숙 김수진 이미혜 최숙화 최재욱  
 오늘설거지봉사 : 최양순 이지훈 이민범 김영아  
 다음 주 설거지 : 양상철 박재란 김광수 조소명  
 새 교 우 : 박미연(4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해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차분한 호흡을 허락하셔서, 감사함 가운데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길을 내다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격려하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반가운 빛소리를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로 산천초목이 춤을 춥니다. 주님, 우리의 갈한 심령 위에도 단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탐욕의 열기를 식혀 주시고 나태의 찌든 때를 씻어 주십시오. 열매를 키워낼 수 있는 참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서 솟구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권미숙	권미정	권순	권채영	김기석	김희우	김범진
김미현	김상근	최선미	김순자	김연실	김용진	김박효	김희운	김범상
김준호	곽혜자	김지윤	김희진	박홍재	박옥식	박준희	김기분	박방문
박혜경	배부레	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백성래	서수진	송윤희	김진성
변혜정	안세진	오자영	왕수명	유상진	유은정	윤미경	윤성재	김이범
윤정덕	구성실	이경남	이계선	이소순	이동천	이민우	공재광	이범석
류정욱	이봉배	이성범	권혁숙	이예서	이우엘	이우원	옥귀희	이윤석
박안수	이재훈	이주영	오재영	이주울	이현인	이승윤	백혜훈	이조호
진정숙	최미자	최은미	최종원	추현영	한인철	김승윤	한훈	이호범
박성실	황경순	황영순	황원순	황자순	무명2			

### 감사헌금:

강순배 김용진 박효선 김일랑 이은옥 박병구 김정애 원인해 이춘재 무명4

### 녹색꿈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범진 김미현 추현영

### 생일감사헌금:

김 크 조순덕

장혜숙	백혜숙	백혜숙	정두리
노순옥	박성희	김미순	배부레
최희영	최경미	서원금	최희영
장영숙	신영신	박경원	신영신
정경례	진정숙	김정숙	이봉배
박홍재	곽권희	김순복	문복순
박효선	허정윤	허정배	박효선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오복순
이형숙	권미숙	이형숙	김필수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이희우
정영선	서정순	송양성	김희우
박혜경	조향미	백성래	조희우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마음으로 읽는 글

# 멀리 가는 물

도종환

어떤 강물이든 처음엔 맑은 마음  
 가벼운 걸음으로 산골짜기를 나선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가는 물줄기는  
 그러나 세상 속을 지나면서/ 흐린 손으로 옆에 서는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미 더럽혀진 물이나  
 찌꺼기를 대로 찌꺼기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 세상 그런 여러 물과 만나며  
 그만 거기 멈추어 버리는 물은 얼마나 많은가  
 제 몸도 버리고 마음도 삭은 채/ 길을 잃은 물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물을 보라  
 흐린 것들까지 흐리지 않게 만들어 데리고 가는  
 물을 보라 결국 다시 맑아지며/ 먼길을 가지 않는가

때문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  
 본래의 제 심성을 다 이지러뜨리지 않으며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며/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는가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가끔은 비틀거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기운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쉽게 불평만 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며 마음을 쏟아 놓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넣어 주시는 새로운 기운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시므온 · 나오미 선교회 주관 예배	7월 기도의 밤 인도 : 이범석 목사

<b>다음 주 예배 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근종 권사	조재훈 선생 김훈동 권사

<b>7월</b>	영접위원	김인걸 허호범 윤성종 박성실 김윤정 김현주
	헌금위원	방문성 유경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단순하게 살기

### 4

상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하느님이 세우신 질서이 한 영역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상업을 경영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저마다 다른 꿈과 다른 기술을 가지고 살게끔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훌륭한 목수로, 누구는 훌륭한 설교자로, 누구는 메마른 땅에 곡식을 기르는 농부로, 누구는 병을 잘 고치는 의원으로 살아가지요.

이렇게 사람은 각자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하거니와, 본인의 기술을 팔거나 본인이 만든 상품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상품에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너무 비싼 값을 매기거나 아니면 사람을 고용하고 적절한 값을 주지 않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 결과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하느님 눈으로 보면 그 어떤 기술도 다른 기술보다 월등하지 않습니다. 모든 형태의 정직한 노동이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일한 대가로 받는 값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질서를 해치는 것입니다.

### 5

남편에게는 집안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옷을 만들고 빨고 고치고, 물을 길고, 방과 살림살이를 청소하는 일에 아내가 필요합니다. 아내에게는 밭을 갈고, 집을 짓고 수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한 돈을 벌어들여 남편이 필요하지요.

하느님은 남자들 가슴속엔 아내 사랑하는 능력을, 여자들 가슴속엔 남편 사랑하는 능력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 마음속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데 충분치 못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물리적인 필요에서 오는 사랑이,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딜 수 있도록 두 사람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 가슴에 이웃 사랑하는 능력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나 서로 남의 기술과 재능에 의존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그 사랑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 6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을 잃지 않으려거든, 그것을 남들과 나누십시오. 지금 가진 것을 계속 가지려거든,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자기 소유에 집착하다가 그것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보물을 사장(死藏)하여 그것들을 썩어 못 쓰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물을 모두 하느님께 내어 맡기세요. 그래야 그것을 훔쳐다가 없애버리려는 자들 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권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들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로 들리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헛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빈틈없는 참말입니다.

하느님만이 우리가 기대어 살아가는 물질을 주실 수 있다고, 믿음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보다 조금 더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사치를 부리라는 게 아니라 고아와 병자와 장애인들을 위하여 그것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저만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는 고약한 청지기라면, 영혼의 가난뱅이가 되고 그 가슴은 비참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선한 청지기라면, 영혼의 부자가 되고 그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차겠지요.